

백두산의 절경들 (2)



본사기자 동창현

효능 높은 천연 건강식품들

최근 공화국에서 개발한 백영양강화콩다식과 해삼단백영양제가 효능이 높은 천연 건강식품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키크기와 백영양제 효과 있는 백영양강화콩다식 백영양강화콩다식은 뼈가루

의 영양성분들을 100% 흡수할 수 있게 하여 뼈발육을 촉진시켜줌으로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키크기에 도움을 주고 노인들의 뼈영양을 개선시켜준다.

림상적으로 검토한데 의하면 10대의 어린이들과 20대

영양강화콩다식을 3달이상 정상적으로 먹었더니 10대의 어린이들은 한해에 키가 7~8cm, 20대를 전후한 청소년들은 최고 5cm 키가 컸다고 한다.

또한 백영양강화콩다식을 3달동안 먹은 노인들속에서 뼈마디아픔해소에 효과가 있

었다고 한다.

암예방과 강보호에 좋은 해삼단백영양제

해삼단백영양제는 꽃가루, 왕벌집을 비롯한 꿀벌산물과 동물성 및 식물성단백질로 만든 천연건강식품이다.

항암, 항균, 항혈전효과가 높기로 이름난 조선훈삼과 동물성 및 식물성단백질, 꿀의 영양학적성분을 추출하여 사람들의 소화흡수에 알맞게 분리 정제한 해삼단백영양제는 항암효과 높고 강보호에 아주 좋다고 한다.



본사기자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학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수학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유산들을 남겨왔는데 그가운데서도 최석정(1646-1715)의 《구수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학에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있던 최석정은 국내외도서들을 널리 참고하면서 당시 수학발전에서 천문력서편찬 등에만 치중하며 자체의 이론적연구를 홀시하던 부족점을 포착하고 수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고 노력하던 과정에 1688년부터 1695년까지 4개편으로 된 《구수략》을 저술하여 내놓았다.

책의 첫번째 편에는 수의 기원, 10진법의 내용, 4칙산법과 구구표, 거울셈법의 개

념, 분수와 그 계산, 편제법 등이 서술되어있다.

두번째 편에는 1원2차방정식의 풀이로 귀착되는 문제들, 직3각형의 상사를 리용한 간접측량의 문제들이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그리고 세번째 편에는 등차합 및 등비합의 일반공식과 합의 공식 그밖의 여러가지 합들의 합의 공식 등이 서술되어있으며 부록으로 된 네번째 편에는 필산하는 방법, 수판에 의한 계산법, 3차-10차까지의 방정식 풀이법이 서술되어 있다.

《구수략》은 당시 우리 민족의 높은 수학발전수준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치있는 유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밀물질분화유산으로 등록된 자라료리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보양제음식으로 이름이났다.

자라고기에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과 같은 여러가지 필수영양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어

건강과 고혈압을 비롯한 병치료에 특효가 있다. 자라피와 갑, 뼈는 고령약

으로 널리 이용되고있다. 자라피는 당뇨병치료에 특효가 있는데 자라피를 마시기 시작하여 2일후부터는 치료효과가 뚜렷이 알려져 3개

월이 지나면 혈당값이 정상수치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자라피는 이름난 강장보혈제로서 허약한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하며 고기맛 또한 좋아 자라는 오래전부터 훌륭한 고급로리를 만드는데 이용되어왔다.

평양의 유류관 료리전문식당에서는 자라로 자라피, 자라탕, 자라찜, 자라죽 등 여러가지 료리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본사기자



류씨의 품행

옛날 생각이 깊고 마음이 어지기로 소문난 류씨네인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류씨는 하녀더러 장마당에 나가 소고기 한근을 사오라고 하였다.

잠시후 하녀가 사온 소고기를 들여다본 류씨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긁적거렸다.

고기의 색이 너무 어둡고 약간의 색은 냄새가 나는것으로 보아 변질된 소고기였다.

류씨는 하녀에게 금방 갓된 푸주간에 아직 팔지 못한 소고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물더니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 장안에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돈을 꺼내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쓰려고 오래전에 장만해두었던 돈이었다. 류씨는 돈을 통째로 하녀에게 주면서 당장 푸주간에로 뛰어가서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몽땅 사오라고 하였다.

하녀가 어이한 눈길로 류씨를 바라보았지만 류씨는 장다짐으로 푸주간에 보냈다. 얼마후 하녀는 심부름군과 함께 거의 한짐이나 되는 많은 소고기를 지게에 지고 들어

이것을 본 류씨는 그 고기를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뒤뜰 한구석에 구멍이를 깊게 파고 묻어버리라고 하였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변질된 고기라는것을 처음에 아신것이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왜 많은 돈을 들여 변질된 고기를 사오라고 하셨습니까?》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생각해보아라.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기가 변질되었기때문이다.》

하녀와 심부름군은 류씨의 고결한 품행에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본사기자

사화 금강산과 김삿갓 (2)

글 박종철, 그림 채대성

이렇게 스님이 연방 불리대 여도 삿갓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꼭 맞을뿐 아니라 그 뜻이 하도 깊어 신기할 정도였다. 마침내 스님은 더 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지막구를 때었는데 삿갓이 제격 그 뜻을 알아차리고 깔을 땀었다. 그 마지막이 다음과 같다.

스님: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천지가 다 희고
삿갓: 산이 깊고 물이 깊으니 나그네수심도 깊다

스님은 여기서 더 감동이 되어 마침내 삿갓이 글재주가 비상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사찰에서 오래 동안 지내면서 시를 짓는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고 한번도 재미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도 시의 신선을 만난셈이구려. 돌이켜보면 이 또한 신령스러운 산의 조화가 아닌가 하오이다.》

스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니 삿갓은 《오래간만에 금강산에 와보

니 기이한 자연경치속에 사람과 신선의 조화가 함께 어울린듯하오이다. 내가 지금껏 금강산을 위하여 시를 짓지 않고 아껴왔는데 직접 여기에 이르러보니 어쩐지 감히 입을 빌려 시라고 부르기가 조차 부끄럽구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두사람은 좋은 시 벗이 되었는데 삿갓은 금강산에 갈 때마다 그 스님과 함께 지내면서 산도 구경하고 시도 같이 지었다 한다.

금강산에 대한 삿갓의 시는 이외에도 전해오는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삿갓이 일정한 생활거처가 없고 어느 한곳에 특별히 적어둔데가 없으나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이 많지 못하며 지어는 그가 떠오르는 감흥을 참지 못하여 나무잎이나 나무껍질 같은데 써서 흐르는 물에 떠내려보낸것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아래에 그가 금강산에서 지은 시들을 몇수 더 소개한다. 이 시는 그가 구룡연계곡에서 지은것이다.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푸른 길 구름속으로 들어가니 루마다 시인의 걸음 멈추도다
날아내리는 눈같은 폭포는 룡의 조화요
솟아오른 메부리는 창경의 기상이라
나무우의 선학은 몇천년을 묵었으며
물가의 푸른 숲은 몇백년을 자랐는고
이내 몸 봄기운에 몹시 피곤 하진만
승려는 사려없이 요란히 종을 울리누나

외금강구역을 돌아본 삿갓은 그 일대의 특이한 자연의 생김새에 대하여 놀랄만치 정확한 묘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래하였다.

큰 산이 뒤에 가리었으니 북녘하늘이 끊어져 없어졌고

만물상구역으로 올라가다 맞은편에 보이는 상관음봉의 룡화암경치를 보고서의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한결을 두결을 세결을 걸음마다 서서 정신했고 바라보니
산은 푸르고 돌은 흰데 사이사이엔 꽃이 반겨 웃는도다
만약 화공에게 저 경치를 본따서
그림을 그리라 한다면
숲속의 저 새소리는 또 어떻게 할고

또 만물상으로 오르면서는 바위우에 떨어질듯 올라앉은 기묘묘한 바위를 보고
위태롭다 저 바위우의 돌 떨어지려고 한지 몇천년이노라고 노래하였다.

외금강구역을 돌아본 삿갓은 그 일대의 특이한 자연의 생김새에 대하여 놀랄만치 정확한 묘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래하였다.

큰 산이 뒤에 가리었으니 북녘하늘이 끊어져 없어졌고

만물상구역으로 올라가다 맞은편에 보이는 상관음봉의 룡화암경치를 보고서의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한결을 두결을 세결을 걸음마다 서서 정신했고 바라보니
산은 푸르고 돌은 흰데 사이사이엔 꽃이 반겨 웃는도다
만약 화공에게 저 경치를 본따서
그림을 그리라 한다면
숲속의 저 새소리는 또 어떻게 할고

대해가 앞에 펼쳐졌으니 땅은 동쪽으로 여기서 끝났도다
지금 서있는 다리아래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이 열리고
내 젊고 선 단장끝에는 금강산 만이천봉이 호기있게

과 바위가 한데 어울리고 풍치로서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자연의 조화로우이 있어 자기도 함께 즐긴다는 기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삿갓이 금강산을 전부 돌아보고 지었다는 시 한수를 더 소개하려

솟았어라
만물동굴안에서 그는 《금강산》이란 시를 쓴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물만 있고 돌이 없으면 물이 빛이 안나고
돌만 있고 물이 없으면 돌이 기이치 못하리
이 땅에는 물이 있고 곁하여 돌도 있어
하늘은 조화를 짓고 나는 시를 짓노라

여기서 삿갓은 금강산에 물

고 한다.
여기서 삿갓은 금강산을 단순한 생김새나 풍치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거대한 그 장엄함을 우주의 크기에 확대하여 보여주면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이는 실로 금강산의 웅장하고 장쾌한 모습을 보다 생동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시라고 할수 있다.

만 이천봉을 다 돌아본 후 봄바람부는 높은 루각에 올라
금강산전경을 굽어보니 내려비치는 해와 달은 거대한 이 자연앞에서 한갓 등근 거울과 같고
하늘은 이 상상봉에서 작은 배와도 같아라
저기 동쪽 대양이 누운 곳에는
세계의 섬이 가까이 보이고
북편에는 살진 자라가 강인히 땅을 뺨치고 서구나
대해 우주는 어느해에 열렸길래
저 태고의 산들이 지금 저렇게 흰머리 되었고

이밖에도 삿갓은 여러 시들에서 금강산의 아름답고 기묘한 풍치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이는 조국의 자연을 사랑한 삿갓의 애국심인 동시에 금강산의 풍치가 삿갓으로 하여금 고만한 재치를 보이게 한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끝)